

安全點檢의 充實化를

理事長 曹 興 萬



産業化時代에 있어서의 防災의 力量은 바로 國家의 力量의 基礎가 된다고 해도 過言은 아닙니다.

科學技術의 進步와 高度의 文化生活에 따르는 火災의 危險이 더욱 複雜多樣化해 가고 있는 現在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企業이든 個人이든 直面하고 있는 많은 危險을 바르게 把握하여 이에 對處하는 適切한 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近來 産業의 成長에 따라 火災의 危險性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成長과 火災發生의 頻度가 반드시 正比例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安全點檢의 充實化로 火災의 發生을 極少化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나라의 火災被害가 增加一路에 있는것은 우리의 經濟成長이 壓倒的으로 앞서 있어서가 아니라, 企業의 安全點檢意識이 成長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反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火災豫防을 위한 劃期的인 改善策이 推進되지 않은 가운데 火災의 發生이 急增하고 있는 것은 遺憾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均衡을 이루지 못하는 成長은 참다운 成長이라고 評價할 수 없다고 봅니다. 産業規模가 擴大되면 그에 比例하는 安全管理의 充實化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입니다.

行政當局과 企業主, 그리고 防火管理者 모두가 이제는 成長에 알맞는 安全의 維持에 더욱 精進할 때입니다. 油類와 가스, 電氣 등의 使用急增趨勢로 大形火災가 急激히 늘어나고, 建物의 大形化가 글자그대로 火災의 大形化로 連結된다면 이처럼 不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 文明은 環境으로 부터의 挑戰과 內部로 부터의 이에 對한 應戰이라는 過程에서 發生하여 應戰에 失敗하였을 때 文明은 滅亡하고 成功하였을 때 維持發展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本誌를 通하여 特殊建物의 效果의인 防火對策을 비롯한 超高層建物 등의 防火對策 등, 흔히 일어날 수 있는 火災에 對한 潛在的危險要素 除去는 勿論 防火意識鼓吹와 防火環境造成運動에 一助가 된다면 이리써 發刊의 뜻을 기리고저 합니다.